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24호 [루계 제25633호] 주제 106(2017)년 5월 4일(목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 세차게 지펴올리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
행의 확고한 전망을 알고 나
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보다
넓은 단계에 걸쳐서 우수한 기
세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더 높이 울리며 전진하고 있다.

석탄공업에서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판들에게
서 4월계획수행의 기가 높아
울려보쳤다. 석탄공업성으로 종
합된 자료에 의하면 4월 석탄생
산계획은 103%, 기본건설계획
은 100%, 준비기기제작은
100%, 사정기술계획은
100%로 초과완수되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생서에서는
강원도정신창조지도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무한한 적동력을 받아안고 더더
욱 고조되는 판부들의 혼란에
맞게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양
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지사
업을 힘있게 밀리었다. 생서에는
사생굴지에 힘을 넣으면서 실무
체급을 내밀어 확고한 굴진전망
을 열어놓기 위한 사업에 모을
성과를 확대하였다. 성일군
들이 막장미니에 전투좌지전을
하고 일별, 주별로 중심공장들에
대한 강의사업을 짜고들며 험준
작전을 강화해나갔다.

현할기업소별경영열풍이 새차
게 불이치는 속에 각지 판들에게

4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4월을 혁혁한 성과로 맞이할
일념으로 실장을 불태우며 4월
30일현세 장반년인민경제계획
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4월인
민경제계획을 힘차게 수행한 기세
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더
높이 울리며 전진하고 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
민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인민경제 여러 부분
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4월인
민경제계획을 힘차게 수행한 기세
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더
높이 울리며 전진하고 있다.

통상기기제작기업소로 동체금
은 《통무는 만리마를 찾는가?》
라는 시대의 불꽃을 심장깊이 간
직하고 불꽃위는 철두를 떠밀어 공
기압축기, 갑속기생산계획을 완
수하였으며 구상용기기제작장,
기기기계공장, 김책공기기계공장
로동체금도 따라앞서기, 따라매
우기운동, 경포항운운동의 불길
높이 증진장을 범려 공작기제
생산계획을 100%, 256%,

100%로 수행하였다.

대안전기공장, 대동강전기공
장, 청진강전기공장, 청양전통기
공장로동체금도 《우리는 만리
마기수》의 노래를 부르며 과감

한 생산직전진을 벌리면서 성
적임연기, 전동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기여하였다.

평양3·26전선공장파 경성
애자공장을 비롯한 다른 단위
들은 철원군과 청진원군도 강원도정
신창조자들의 투쟁기공과 일본
새를 따라매워 4월전두목을

일별, 주별로 넘쳐 수행하였다.

본사기자 김훈성

단설, 일반전, 비료도생산계획이
각각 111.4%, 103%,
100%, 88%로 수행되었으며 대
색단파 담요를 비롯한 중요재자
별생산계획이 계기일내에 완수
되었다.

국일군들은 과학적인 작업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약의 일본
새를 날길없이 말회하여 경제조
직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각자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나갔다. 주제철생산상황에서
는 자신들이 달고 있는 업무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담요와
비료, 비단원생산에서 날에 날
마다 종신의 높이 끌어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1)

비운이 드리웠던 이 땅에 역사의 새벽을 불러온 《남산의 푸른 소나무》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개관된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으로 천만군민의 불길이 굽이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同志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가 접대장을 시원 모든 사직물들과 자료들은 대대손손 걸어 전해 가야 할 가장 귀중한 재보 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념국은 대우의 혁명전통을 빠와 살로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무례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려는 전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의사로 민영하여 조선혁명박물관의 100여개 호실들에 대한 참관기를 현재하여 신게 된다.

얼마전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는 우리의 마음은 충엄한 감정에 휩싸이었다.

참관자들과 함께 흥서관에 들어서니 정면에는 벽두산에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화 미술작품이 모셔져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난 규모의 무장당대를 갖고 수천명의 명령으로 우리 나라에 강도적으로 쳐들어왔던 『명인영묘』, 미국령 막사들이 1881년 5월의 군함과 80분의 대로, 천수백명으로 유행한 『신미양요』에 대하여 보여주는 전시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백수십 년전부터 청진회원 미계의 침략적 본성을 참관자들에게 실물로 깨우쳐주고 있었다.

그 열세 번째 전시 『혁희비』가 19세기 후반 우리 나라의 정세를 그대로 말하여 주고 있었다.

서양오랑캐들이 침범하니 사우지 않는 것은 환원하는 것이다. 환원을 주장하는 것은 나리를 파는 것이다. 우리의 철망년 차운들에게 이것을 정교한다. 명인(1886년)에 이 글을 지었고 신미(1887년)에 비해 세계 전국에 세운다.

비문에도 있듯바 같이 서양오랑캐들의 침략적 통이 계속되는 최대의 학설량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를 기어코 정복하려는 놈들의 침략야망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어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혁희비』, 그 비석들이 전국 각지에 세워지고 거기에 세워진 비문의 격조가 아우러 높다 한 데, 인민의 반외세, 반침략투쟁 기세가 아우러 높다. 활동 기록에 기록하는 나라이의 운명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실에서 첫 눈에 안겨오는 것은 1866년 침략선 『서민』들이 린원 반침략, 불건봉투쟁 자료들과 불교불구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翻강들의 각축전터만으로 무작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

조중관계의 기동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우리의 해보유율을 걸고 미국과 그 후 종세력들이 간접하는 반공화국체제와 군사적 악수도에서 한계를 넘어서고 조선반도정세가 각각 차운데에 고집되는데 대한 내외의 우려는 배우 실각하다.

그런데 미국이 요란하게 불어대는 위험 공급과 전쟁행동에 실장이 풀어들여서인지 당시 다른 이웃나라들에서 사례와 분별을 잊은 인사들이 편입 미군과 현 사례를 대우 경장국면으로 물어가고 있다.

중국당과 정부의 공식립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네리 알려진 《인민일보》와 《환구 시보》가 지면을 아끼지 않고 쏟아내는 글들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에도 《인민일보》와 《환구시보》는 어제의 문령에서 우리의 해보유가 저들의 국가적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떠밀면서 조중관계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미국의 장단에 놓아놓은 비열한 행위에 대해 구구하게 변명해 나섰다.

평생들에서는 조선이 중국국경으로부터 100km 안되는 곳에서 해시험을 하면서 《동북지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느니, 우리가 동북아시아정세를 자극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배치》를 강화하는 구실을 끌어 퍼로써 개척되고 남녀와 세

기들 이어 공고밀리되어온 조중관계를 통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없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하면 들고 나오는 동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국적 미세한 평의 방사성물질들도 포집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외워하고 동북3성의 그 무순 《피해》를 떠드는 것은 우리의 핵

교도화를 막기와 하지 않는 중국의 속내만을 그대로 드러내보일뿐이다.

중국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걸렸다면

비하하는 극히 도전적인 말들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리와 존엄, 쇠고리 이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선선의 오만 행위로 전통을 가진 선량한 이웃나라에 대한 보수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오늘에 와서 내외가 공인하는 핵보유의 불가피성과 순탄히 않았던 모든 과정에 대하여 다시 설명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자신들과 전혀 상관도 없는 우리 의 핵문제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 못지 않게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천안부당한 구실을 끌어 퍼로써 개척되고 남녀와 세

기들 이어 공고밀리되어온 조중관계를 통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없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하면 들고 나오는 동

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

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

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적대세력과 함께 해시험장을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하면 들고 나오는 동

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

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

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적대세력과 함께 해시험장을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하면 들고 나오는 동

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

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

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적대세력과 함께 해시험장을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하면 들고 나오는 동

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

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

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적대세력과 함께 해시험장을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하면 들고 나오는 동

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

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

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적대세력과 함께 해시험장을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하면 들고 나오는 동

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

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

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적대세력과 함께 해시험장을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하면 들고 나오는 동

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

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

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적대세력과 함께 해시험장을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으면 들고 나오는 동

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

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

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적대세력과 함께 해시험장을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으면 들고 나오는 동

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

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

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적대세력과 함께 해시험장을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으면 들고 나오는 동

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

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

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적대세력과 함께 해시험장을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으면 들고 나오는 동

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

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

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적대세력과 함께 해시험장을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으면 들고 나오는 동

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

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

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적대세력과 함께 해시험장을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으면 들고 나오는 동

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

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

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적대세력과 함께 해시험장을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으면 들고 나오는 동

북3성의 《해시험피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무런 학제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역사 주장이다.

5차례 결승 우리의 해시험은 절제한 안

전보호에 진행되었으며 해시험장과 함께 해시험장을 끌어내면서 천안부당한

미국이 핵물질로 심장을 갖춘 최첨단방

보수단을 통일하여 우리의 해보유를

비롯한 적대세력과 함께 해시험장을

제로 무너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적분을 금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에서 찍으면 들고 나오는 동